

## K-유형유산(K-Tangible Heritage): 1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귀환한 지광국사탑(智光國師塔) The Return of the Jigwang Guksa Pagoda After a Century

이종연\*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유적은 심각한 훼손과 유출의 수난을 겪었다. 전국 각지의 석탑과 석불, 불상, 그리고 사찰 유물들이 제자리를 잃고 흩어지거나, 본래의 역사적 맥락을 상실한 채 타지로 옮겨졌다. 이는 단순한 유물의 이동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적 근간과 미적 전통이 단절되는 아픔으로 기록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유물이 바로 지광국사탑이다.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석조문화재로, 조형미와 장식미,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에서 한국 석탑사(石塔史)의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일제강점기의 수난과 약탈, 그리고 복원과 반환의 역사가 함께 얽혀 있다.

현재 지광국사탑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로 지정되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 글은 지광국사탑의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유물이 겪어온 역사적 여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난의 실상을 복원하고, 나아가 오늘날 문화유산 보존의 의미를 성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강원 지역 문화콘텐츠와 문학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0421whddus@naver.com

## 1. 지광국사탑과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사진 1〉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출처: 원주시 역사박물관)

113년의 긴 유량을 마치고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마침내 고향 원주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광국사탑의 지난 역사는 한 편의 비극사였다. 일제강점기에 탑은 원주를 떠나 강제로 서울로 옮겨졌고, 다시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해방 이후 귀환하였으나 경북공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포탄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 후 흩어진 부재들은 수장고와 연구실을 전전하며 긴 세월을 버텨야 했다. 지광국사탑은 이처럼 나라의 시련과 운명을 함께하며 깊은 상처를 입었고, 한 세기를 넘는 기다림 끝에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던 탑이 2024년 11월 12일, 마침내 원주로 돌아와 현재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다.

지광국사탑은 고려(高麗)시대의 위대한 고승(高僧) 지광국사 해린(智光國師 海麟, 984~1070)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워진 승탑이다. 해린은 고려 현종과 문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왕사(王師)와 국사(國師)의 지위에 오른 당대 불교계의 큰 스승이었다. 그가 입적한 뒤로, 1085년에 건립된 이 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수많은 승탑 가운데서도 단연 독보적인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교하면서도 절제된 조각, 그리고 독창적인 구조미는 고려인의 미의식과 종교적 열망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한국 석조 예술의 전통을 대표하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된다. 탑의 갑석에 새겨진 문양은 이러한 예술적 성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이러한 ‘지광국사탑’의 온전한 보존과 진면목을 대중에게 드러내기 위해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곳의 전시는 단순히 복원된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데

www.kci.go.kr



〈사진 2〉 지광국사탑 갑석문양 좌, 우 (출처: 국가유산청)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고려 석조 예술의 극치를 증명하는 예술사적 가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적 시련을 함께한 역사적 가치,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의 복원 기술과 전통 계승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조명한다. 결국 지광국사탑의 귀환은 단순한 문화재의 복원이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전시관은 지광국사탑이 지닌 역사적, 예술적 의미를 오늘에 되살려내고, 이를 차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문화유산이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 있는 가치로 이어져야 함을 일깨워준다.

## 2.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의 구성 및 특징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수난의 역사를 겪고 113년 만에 돌아온 지광국사탑을 중심으로, 법천사와 관련된 여러 유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먼저 유적전시관의 중심부에는 지광국사탑이 자리한다. 지광국사탑은 원래 지광국사탑비와 함께 야외에 있었지만, 100여 년간의 유랑과 수난을 거치며 많은 훼손을 당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12,000여 조각으로 파괴되었고 1957년 시멘트로 인한 복구는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1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야외에 노출되면서 풍화도 심각하게 당해 더 이상 야외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진 3〉 지광국사탑 실내 전시 전경 (출처: 국가유산청)

지광국사탑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관객들은 지광국사탑을 모든 각도에서 더 자세히,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된 탑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탑 하부에는 지진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면진 설비와 탑의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 설비가 있어 지광국사탑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시하고 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의 유물들은 당시 법천사가 중앙권력과 얼마나 긴밀히 교류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1층, 법천사지 실에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출토된 유물과 법천사지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 유물로는 금동불입상, 금동발걸이, 불두, 추정 청동향로 등이 있다. 개방형 수장고는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와당류 및 석조유물의 일부가 보존 및 전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출토되는 유물들 또한 이곳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2층은 공양보살상실이 있다. 법천사지는 쌍탑 가람배치의 사찰로 두 개의 석조 공양보살상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1기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나머지는 공양보살상실에 복원하여 전시 중이다. 특히 법천사지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가 함께 구현되어 있어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야외에는 여러 가지 석조 유물들과 지광국사탑비가 전시되어 있어 과거 법천사지를 연상할 수 있게 한다.

〈표 1〉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주요 전시품

위치	유물명	특징
1층 - 법천사지실	금동불입상	사찰과 귀족의 후원, 고려시대 최고 공예 수준을 볼 수 있다.
	금동 발걸이	
	철제 은상감재갈	
1층 - 개방형수장고	범자문 압막새	밀교적 불교신앙의 특징을 보여준다.
2층 - 공양보살상 전시실	석조공양보살상	독특한 쌍탑 가람배치의 핵심적 고고학 증거이다.
야외	지광국사탑비	국보, 고려시대 서예와 조각의 걸작이자 당대 역사를 담고 있는 1차 사료이다.

법천사지는 과거 고려시대에 수운의 중심지이면서 법상종의 중심이었다. 수많은 승려가 수행했던 만큼 발굴 조사에서 4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으며,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한명회, 서거정 등 학자들의 학문 교류의 장이 되었다. 또한 허균이 법천사를 다녀온 뒤 『유원주법천사기』를 작성했고, 여기서 임진왜란 때에 법천사지가 불타서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원주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광국사탑을 중심으로 법천사지 출토 유물들과 함께 전시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간직하고, 앞으로 보존해 나가며 다시 한번 원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 3. 지광국사탑의 원주 귀환

지광국사탑의 원주 귀환은 해린의 삶에 대입해 보면 더욱 특별하다. 법천사지는 강원, 충청, 경기 세 개의 도가 접하고, 남한강과 섬강이 합류하는 원주시 부론면 명봉산 자락에 위치해 수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에 자리 잡았다. 지광국사 해린의 고향은 원주였다. 그는 법천사에서 공부하였고, 이후 법천사에서 출가하여 당대 최고의 고승이 되었다. 국사의 자리에 오른 후 1067년 다시 원주의 법천사로 돌아와 입적했다. 지광국사가 법천사에 있는 동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중앙정부와의 연결 용이성, 중국의 선진 불교사상 수용을 활용하여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으로서 불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법천사는 지광국사에게 나고 자라며, 자신이 성장시킨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사리를 모시기 위한 지광국사탑이 세워진 것이다.

지광국사탑이 원주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은 1911년 일제에 의해 자행된 계획적인 약탈이다. 당시 일본은 ‘고적조사’라는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가치 있는 유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중 ‘경주도 맨발로 도망갈 정도’였던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원주는 약탈의 주요 대상이 되어 원주 지역 문화재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되고 등급이 매겨졌다. 이는 학술적 목적이 아닌 ‘문화재 약탈의 설계서’였다. 이에 따라 지광국사탑을 비롯한 여러 석탑과 유물들이 강제 반출되었다. 이러한 일제의 문화재 약탈은 원주의 문화재에 대한 전통과 의례의식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일본에 문화적으로 협력시키기 위한 지역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일본 반출, 조선물산공진회의 전시품 전략, 한국전쟁 폭격 등 민족의 시련을 고스란히 겪으며 파괴되었다. 이렇게 113년간의 수난을 겪다가 마침내 귀환한 것은 단순한 문화재 이동이 아니라 원주와 위인의 정신이 자신의 고향이자 터전에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광국사탑의 귀환은 단순한 유물의 복원을 넘어, 일제에 의해 기획적으로 단절되었던 원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잇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현대의 기술과 노력으로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온전히 계승하겠다는 다짐의 증거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그 살아있는 역사의 장으로서 앞으로도 원주의 문화유산을 통해 원주 지역의 문화적 위상과 정신을 보여 주고 계승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